

베트남 국제결혼 여성의 혼인이주 원인 및 의사결정과정

송 유 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Main Reas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for Marriage Migration of Vietnamese Women

Song, Yoo Jean
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main reas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marriage migration from a Vietnamese'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Vietnam. Interviewees are those who got married to foreigners but are waiting for visas and parents whose daughters are marriage migrants. According to 23 interviewees, the main reasons of marriage migration are as follows: individual aspiration, sacrifice for others, and the circumstantial effects or love. Individual aspiration, in particular, leads to an active pursuit of international marriage. Parental involv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rarely found. Decision seems to be wholly made by the female migrant herself based on an individualistic orientation.

Key words: marriage migration, decision-making process, Vietnam, In-depth interview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의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결합이었고, 이들이 외국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반면 최근에 관찰되는 국제결혼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합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과 갈등, 결혼이민자의 인권, 복지 등이 대표적인 연구주제이다. 최근에는 혼인이주의 원인과 경로 등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의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

이 연구는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지원사업(2006-B00228)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접수일: 2008년 10월 22일 채택일: 2008년 11월 26일

Corresponding Author: Song, Yoo Jean Tel: 82-51-240-2729

e-mail: yjsong28@dau.ac.kr

다. 그러나 송출국의 상황에서 혼인이주 여성과 가족의 입장을 조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은 주로 저학력 단순노동자나 농업에 종사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된다. 즉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동남아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과 혼인을 한다는 것이다(김두섭 2006; 설동훈 등 2005). 국제결혼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원인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의사결정에 관한 논의, 즉 개인의 결정인가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정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적절하지 않다. 반면 한국남성들과 결혼하는 외국여성들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있어서 국제결혼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과 대부분 남편의 나라로 이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이주라는 두 가지 사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게 하고 이것이 이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이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으로 혼인이주를 하는 베트남 여성들은 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결정하는가? 둘째, 국제결혼의 의사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 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주로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는가? 이 연구는 위의 연구문제에 대하여 송출국의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왜 베트남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이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을 기점으로 중국인과 조선족 여성

들이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의 국적이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몽고,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베트남 여성들은 다른 국적의 여성들에 비하여 몇 가지 차별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는 95명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건수 중 약 1%를 차지하였다. 이후 2006년에는 외국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건수 중 약 34%를 차지하여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줄 만큼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통계청 2008). 한국남성과 결혼을 한 외국여성들의 배우자와의 평균 연령 차이는 8.3년인 데 반하여 베트남 여성들은 평균 17.1년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가장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졸 이하의 학력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거주지가 대부분 농촌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농촌총각들의 배우자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김두섭 2006).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어린 나이에 본국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나이 많은 한국의 농촌남성들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는 시부모 부양과 가사일 등 헌신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들은 순종적이고 헌신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김민정 등 2006; 설동훈 등 2006). 이는 베트남의 문화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와 유사할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베트남의 가족 및 친족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는 복합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가령 북쪽 지방의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유교문화의 특성이 강하여 가부장적 부계제가 주를 차지한다고 보고된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는 낮으며 부모자식 관계도 수직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남쪽 지방은 동남아시아적 양변제의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딸과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의 지위도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Knodel et al. 2000). 몇몇 연구자는

지역에 따라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보다는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Hirschman et al. 1996; Luong 1989). 역사적인 문헌 고찰을 통한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가족제도는 중국의 가부장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내가 남편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렸으며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부모자녀 관계는 독립적 혹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존재했다는 것이다(유인선 1997).

그렇다면 현대 베트남의 가족은 어떠한 모습을 지니며 또한 베트남 여성들은 왜 어떤 결정과정을 통하여 혼인이주를 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베트남은 한국인들에게 미지의 세계이다. 도이모이 이후 베트남의 정치, 경제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다. 반면 베트남의 가족과 문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문화에 대한 생각은 전쟁의 경험이나 영화 등을 통하여 형성된 단편적인 특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남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이 없다면 잘못된 편견이나 상호 기대의 차이로 인하여 국제결혼과 혼인이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조사를 통하여 혼인이주의 원인 및 결정과정 등을 파악하고 베트남 가족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기존연구들의 주제는 크게 혼인이주 여성들의 가족갈등과 적응, 가정폭력과 인권, 여성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결혼으로 요약된다. 가족갈등과 적응에 대한 기존연구는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면접조사에 근거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김민정 등 2006; 윤형숙 2004; 하밍타잉 2005; 한건수 2006). 가정폭력과 인권에 대한 기존연구는 소규모 면접조사에 근거하여 결혼사기, 가정폭력, 빈곤, 사회적 차별, 정체성과 시민권, 가족해체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이선주 등 2005; 이해경 2005; 한국염 2004). 여성학적 관점

에서 접근한 국제결혼에 대한 기존연구는 각각 조선족과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임안나 2005; 홍기혜 2000). 조선족 여성들을 면접한 홍기혜(2000)의 연구는 국가, 민족, 인종, 성별이라는 억압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를 여성학적인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임안나(2005)의 연구는 필리핀 여성들을 면접함으로써 혼인이주 여성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소수 면접함으로써 결혼의 결과적인 측면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이해경(2005)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4년까지 실시된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연구는 대부분 조선족, 일본,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사례연구 혹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 주제와 방법론 및 연구대상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혼 경로부터 적응까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한 연구(설동훈 등 2005; 설동훈 등 2006)들도 시도되었다.

또한 혼인이주의 증가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설동훈 등(2005)와 김현미(2006)의 연구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및 국가간 경제발전의 차이라는 배경 하에서 중개업소의 역할과 송출국 및 유입국의 정부정책이 어떻게 혼인이주의 증가를 야기하는지 논의하였다. 또한 송출국과 유입국의 상황이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김두섭(2006)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혼인이주 증가원인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틀에서는 인구학적 관점이 부각되는데, 한국사회의 성 및 연령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배경적인 요인으로,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이 매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 국제결혼 증가를 제시하였다. 김두섭(2006)의 연구가 유입국인 한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면, 김현재(2007)는 베트남의 상황을

중심으로 혼인이주가 증가하는 배경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한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베트남 여성들의 한국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점과 도시화로 인하여 베트남 남성들이 대거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 지역에 결혼적령기의 여성이 많이 남아있는 성별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혼인이주의 원인에 대하여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혼인이주의 원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혼인이주경로와 결혼생활 경험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혼인이주의 원인을 언급하였다(김현미 2006; 이해경 등 200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분이 혼인이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주를 위하여 혼인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전략으로써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이 드러났다.

아시아 내에서 나타나는 혼인이주 현상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외에서 행해진 선행연구들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혼인이주 증가의 배경적인 원인을 논의하거나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이주자들의 특성을 국적별로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다(Limanonda 2008; Ogena et al. 2008; Thi 2005; Tsay 2004).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한 평가는 수동적인 희생양으로 묘사되던 경향에서부터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의 주체성(agency)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Bélanger(2007)는 대만과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들을 심층면접하고 관찰한 자료를 토대로 여성들이 어떻게 제한된 구조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적응하는지 기술하였다. Nakamatsu (2003) 역시 혼인이주를 실행하는 여성들의 적응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능동적인 주체(agency)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노동과 혼인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혼인이주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어머니, 아내, 노동자 등에 대하여 지적인 연구도 있다(Piper 2003).

혼인이주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주제의 폭과 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 초점

을 맞추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혼인이주의 결과적인 측면을 유입국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접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결혼생활과 한국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국제결혼의 동기와 결정과정을 당초와 달리 재해석할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베트남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제결혼 후 출국대기 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혼인이주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혼인이주의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족과 개인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부모의 입장이 반영된 연구는 수행된 바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딸을 둔 부모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지역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베트남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일대일 심층면접에 국한되었다. 심층면접은 계량적인 방법을 통한 일반화가 아니라 양적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아직까지 베트남 현지조사를 통해 수행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베트남 현지의 맥락 및 베트남인들의 가치관과 결혼 결정과정 등을 이해하고 소개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지닌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들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경비를 요구하며 감시를 하는 경향이 강해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현지조사를 위한 대상지역과 응답자 선정은 전적으로 베트남 현지 연구진들의 도움에 의존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 많은 지역으로 제한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은 북부에 자리잡은 하이퐁(Hai Phong)시와 남부의 호치민시, 롱안(Long Anh province)지역의 칸하우(Khanh Hau), 그리고 칸토시(Can Tho)의 툯냏(Thot Not) 지역과

탄록섬(Tan Loc island)이다.

응답자는 외국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후 현재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한 딸을 둔 부모들(가구당 1명)로 한정하였다. 응답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대만인과 결혼한 사례도 소수 포함되었다. 국제결혼을 한 딸을 둔 부모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응답자였으나 아버지가 응답을 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최종 응답자 수는 출국대기여성 10명, 국제결혼을 한 딸을 둔 부모 13명으로 총 23명이다.

심층면접을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번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각 방문 시에는 약 1주일에서 열흘간 현지에서 머물렀다.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 체크리스트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는 면접에 참여하여 진행과정을 관찰하였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반적인 진행사항과 내용을 파악하였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문점이 생기면 통역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심층면접은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면접 장소는 대부분 응답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집에서 면접을 함으로써 가구의 경제상황과 가족상황, 전반적인 여건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외적인 사례는 호치민시에서 면접한 출국대기여성 2명과 하이퐁에서 면접한 여러 사례 중 3사례이다. 호치민에서 면접한 출국대기여성들은 중개업체에서, 그리고 하이퐁의 몇 사례는 연구자가 머무르는 숙소에서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이 모두 끝난 후 연구자는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응답자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면접은 녹음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지 조사원

Table 1. Characteristics of women who are waiting for departure

	Area	Year of birth	Education	Occupation	Age of parents	Birth order and number of siblings	Nationality of spouse
1	Tan Loc	1982	Middle school	No job	f: 41 m: 44	1st among 2 daughters	Korean (1st marriage)
2	Thot Not	1979	Middle school drop out	Clerk	f: dead m: 63	6th among 4 sons & 3 daughters	Korean (1st marriage)
3	Tan Loc	1987	High school	No job (former worker at factory)	f: 43 m: 43	1st among 1 son & 2 daughters	Korean (1st marriage)
4	Ca Mau	1986	High school	Waitress	f: 52 m: 48	3rd among 1 son & 5 daughters	Korean (1st marriage)
5	Cu Chi (Ho Chi Min)	1982	Middle school	No job (former worker at factory)	f: dead m: 49	1st among 2 sons & 1 daughter	Korean (2nd marriage)
6	Quan Toan (Hai Phong)	1977	High school	Salesperson	f: 57 m: 55	3rd among 5 daughters	Taiwan (1st marriage)
7	Nam Hai (Hai Phong)	1988	High school	No job	f: 58 m: 49	3rd among 2 sons & 1 daughter	Korean (1st marriage)
8	Hai Phong	1985	High school	Cultivating flower	f: dead m: 47	2nd among 2 sons & 1 daughter	China (2nd marriage)
9	Kien Thuy (Hai Phong)	1986	Middle school	No job	f: 47 m: 42	2nd among 2 sons & 1 daughter	Korean (2nd marriage)
10	Do Son (Hai Phong)	1979	Middle school	Seamstress	f: 52 m: 51	1st among 1 son & 2 daughters	Korean (1st marriage)

이 베트남어로 녹취하였고 이후 통역사가 영어로 번역을 하였다.

2. 연구대상 지역

하이퐁(Hai Phong)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의 항구도시로서 호치민, 하노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는 180만명 정도이다. 하이퐁은 5개의 도시지역과 8개의 농촌지역을 포

함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약간의 생활수준 차이가 있다(엘리스 2005; GSO 2007). 호치민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또한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중심도시이다. 총 19개의 도시지역과 5개의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퐁안과 칸토는 행정구역상 메콩델타 지역으로 구분된다(GSO 2007). 메콩델타 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강, 열대성 기후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식량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면적은 전체 국토의 12%에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ents whose daughters got married to foreigner

	Respon- dents	Area	Year of birth	Education	Occupation	Number of child	Nationality of son-in-law
1	Father	Thot Not	1962	Middle school drop out	Mechanics (spouse: housewife)	1 son & 2 daughters	Korean (2nd child)
2	Mother	Thot Not	1947	None	Unpaid family employee	3 sons & 2 daughters	Korean (last child)
3	Mother	Thot Not	1949	None	Unpaid family employee	3 sons & 2 daughters	Korean (4th child)
4	Mother	Tan Loc	1951	Primary school drop out	Seamstress (spouse: farmer)	2 sons & 1 daughter	Korean (last child)
5	Mother	Tan Loc	1965	Primary school	Unpaid family employee	3 sons & 3 daughters	Korean (2nd child)
6	Mother	Long Anh	1951	High school drop out	Housewife (spouse: farmer)	2 sons & 2 daughters	Taiwan (3rd child)
7	Mother	Long Anh	1958	Primary school	Sells noodle (spouse: dead)	1 son & 4 daughters	Korean (4th child)
8	Mother	Long Anh	1956	Primary school	Housewife (spouse: farmer)	2 sons & 2 daughters	Taiwan (2nd child)
9	Father	Hai Phong	1949	Middle school drop out	Retired, worked for fishing (spouse: housewife)	4 sons & 4 daughters	Korean (3rd & 4th children)
10	Mother	Hai Phong	1954	Middle school drop out	Housewife (spouse: retired, worked for fishing)	1 son & 3 daughters	Korean (3rd child)
11	Father	Kien Thuy (Hai Phong)	1961	Middle school drop out	Farmer (spouse: farmer)	2 sons & 1 daughter	Korean (last child)
12	Father	Nam Hai (Hai Phong)	1952	Middle school	Retired, worked for fishing (spouse: sells fish)	4 sons & 1 daughter	Korean (3rd child)
13	Mother	Kien Thuy (Hai Phong)	1956	Middle school drop out	Farmer (spouse: farmer)	1 son & 2 daughters	Korean (2nd child)

불과하지만 총 인구의 5분의 1이 몰려 있고 식용 농작물 총 생산량의 60%와 쌀 수출량의 80%를 생산하는 곳이다(엘리스 2005). 룡안 지역은 호치민시에서 약 1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메콩델타 지역의 초입에 해당하는 반면, 칸토시는 호치민시에서 약 200km 가량 떨어져 있다. 베트남 통계청(GSO) 자료에 따르면, 룡안 지역은 13개의 농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140만명이다. 칸토 지역은 4개의 도시지역과 4개의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약 110만명이다(GSO 2007).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하이퐁은 비교적 발달된 도시이다. 하노이나 호치민시에 비해서는 발전 정도가 낮은 소규모의 안정적인 지역이었지만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호치민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된 지역인 만큼 서구적인 고층빌딩과 레스토랑 및 상점, 수많은 인파와 관광객, 그리고 밀려드는 오토바이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였다. 룡안 지역은 과거에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많은 외국 공장들이 진입한 곳이었다. 이는 호치민시와의 근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하였던 칸하우(Khanh Hau)는 2006년에 읍으로 승격된 곳이기 때문에 농촌적인 특성과 도시적인 특성이 혼재하였다. 칸토시의 툃쯏 역시 농촌적인 특성과 도시적인 특성이 혼재한 곳이었으나, 발전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 칸토시의 탄록섬은 툃쯏 지역에서 약 20분 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전형적인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다. 이 섬은 국제결혼이 매우 보편적이고, 특히 대만으로의 혼인이주가 대다수를 차지해서 ‘대만인의 섬(Taiwanese island)’이라고 불리운다. 탄록섬에는 총 6,500가구와 인구 30,000명이 거주하는데 이 중 800가구가 혼인이주를 한 딸이 있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면접이 이루어진 2007년 3월까지 총 30명이 한국인과 결혼을 한 것으로 보고된다.

IV. 심층면접 결과

1. 혼인이주 원인 및 경로

이 연구의 응답자들이 혼인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은 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 혹은 베트남을 떠나고 싶다는 열망,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 풍요에 대한 열망, 가족을 돕고 싶어서,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을 피하고 싶어서, 자녀에게 나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적합한 베트남 남성을 만날 수가 없어서 순서이다. 이 연구는 소수의 심층면접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유형화나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이주 원인들은 약간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어서’와 ‘가족을 돕고 싶어서’, 그리고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등은 결국 경제적인 원인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들은 면접을 통하여 경제적인 혜택의 주체가 다름이 발견되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혼인이주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지 않는다. 이들은 취업의사나 가족에게 송금할 의사도 약하다. 상황에 따라 가능하면 송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을 뿐이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감은 약하고 개인적 열망이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생활에 적응이 된 이후에는 취업을 하고 싶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서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즉 혼인이주의 결과로 추후에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혜택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지는 않지만, 혼인이주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가족을 돕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취업이나 송금을 통하여 가족의 경제상황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이들은 경제적 혜택의 주체가 자녀임을 강조한다. 한국이나 대만이 경제적, 교육적, 복지적 측면에서 베트남보다 낫다는 정보를 통하여

자녀만큼은 나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는 바람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혼인이주의 원인이 상호 연관되지만 차별적인 특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개인적 열망, 타인을 위한 것, 상황적인 요인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혼인이주의 원인들은 당사자들이 국제결혼을 희망하고 의도했는지 여부와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열망이 혼인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응답자들은 국제결혼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향을 보인다. 중개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등록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타인을 위해서 혹은 상황적인 요인이 혼인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응답자들은 막연히 국제결혼을 희망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거나 혹은 특별히 국제결혼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우연한 기회로 결정하게 되는 등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1) 개인적 열망

Bélanger(2007)는 수년간 베트남에서 실시한 현지 조사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혼인이주를 하는 베트남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모험심이 강하고 대담한 성향을 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자도 심층면접을 통하여 혼인이주를 하는 여성들이 상반된 성향을 지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모험심이 강하고 대담한 적극적인 유형과 수동적으로 혹은 막연한 생각으로 혼인이주를 결정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혼인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개인적 열망으로 구분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전자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출국대기여성 10명 중에 가장 중요한 혼인이주의 원인이 '개인적 열망'에 해당하는 사례는 3사례이다. 부모들의 평가에 의하면 '개인적 열망'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13명 중 6사례이다. 외국생활을 동경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결혼을 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노동자로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거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이미 혼인이주를 한 예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본인이 절실히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개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등록을 하거나 혹은 이미

혼인이주를 한 친척이나 친구에게 배우자감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일본 핸드폰 제조 공장에서 약 3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요. 외국에 살면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대적인 생활 방식도 마음에 들었어요. 오래 동안 일본에서 살다가 베트남으로 돌아오니 이 곳 생활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중개업체에 등록을 하였어요. 일본보다는 한국이 베트남과 문화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호했구요(출국대기여성 5번)”

“친척 가게에서 재단사로 일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도 없고...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고 외국에서 살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촌에게 배우자감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무래도 중개업체보다는 친척 소개가 믿을만하니까...남편이 처음으로 소개받은 사람인데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정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계속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출국대기여성 10번)”

부모들이 '개인적 열망'이라고 평가한 경우도 중개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등록할 정도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베트남 남성들과 결혼하기 싫다거나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국제결혼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남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술을 많이 먹고 부인을 때린다,' '일을 안 한다,' '마약을 한다'가 대표적이다. 남성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주로 메콩델타 지역의 응답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이는 메콩델타 지역의 특성상 농산물과 해산물 등 식량이 풍부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지

배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호치민시나 근교 시로 노동이동을 하였고, 메콩델타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동기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선별성(selectivity)도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젊은 남성들이 마약을 한다는 의견은 실제로 부모 응답자의 경우 아들이 마약을 하였거나 출국대기 여성 응답자의 남자형제가 마약을 한 예도 있었다.

딸이 국제결혼을 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개인적 열망’을 꼽은 부모들의 경우에 딸이 중개업체에 등록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나중에 결혼 결정을 통보받고 알게 된 예도 있었다. 한 사례는 딸은 외국에서의 취업을 원했으나 어머니가 반대하며 오히려 국제결혼을 권유하여 절충안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딸은 국제결혼을 한 친구들로부터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친구들에게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결혼한 친구들이 베트남 남자들은 일을 잘 안하고 술을 많이 먹고 부인을 때린다는 얘기를 한다며 베트남 남자와는 결혼하기 싫다고 종종 얘기했어요. 그래도 특별히 국제결혼을 원한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친구랑 같이 호치민시의 결혼중개업체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호치민시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동네 친구랑 같이 놀러가서 그런 줄 알았었는데...(부모 응답자 2번)”

“나는 딸이 베트남 남자와 결혼해서 가깝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딸은 국제결혼을 희망했고, 멀리 사는 가난한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면 잘 사는 외국 남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더 가족을 자주 못 볼 수도 있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호치민시의 공장에서 한 2년간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중개업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한국남자와 결혼한다고 알려 왔어요. 나는 딸이 중개업체에 등록을 했는지, 사람을

소개받았는지 등 아무것도 몰랐지요(부모 응답자 4번)”

“결혼 당시 딸의 나이는 29세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결혼은 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서류 작성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던 중, 제가 반대했어요. 혹시라도 혼자 외국에 있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착취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또 처녀가 혼자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고...그래서 차라리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을 권했지요. 한참을 저랑 실랑이를 하다가 딸이 제 의견에 따르기로 동의하고 중개업체에 등록을 했지요. 여러 명의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잘 성사가 안 되다가 마침내 결혼이 결정되었어요(부모 응답자 10번)”

2) 타인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족을 돕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경제적인 동기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바람이 국제결혼의 배경적 요소로 깔려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는 돈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직접적인 응답을 회피한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부모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딸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응답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국대기여성 10명 중 2명이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 국제결혼을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부모 응답자들 중에는 1명만이 ‘가족을 돕기 위해서’를 딸이 국제결혼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국제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가족을 돕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출국대기여성은 국제결혼을 특별히 원하거나 시도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단지 주변에 국제결혼을 한 딸이 있는 집들이 송금을 통해서 집을 수리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막연히 부러워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딸이 국제

결혼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족을 돕기 위해서’를 꼽은 부모 응답자는 딸이 중개업체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국제결혼을 원하거나 의도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 딸이 국제결혼을 한 이후에 형편이 나아지는 집들을 보면서 막연히 부러워한 적은 많지요. 우리집이 가난해서 나이가 들도록 결혼도 안하고 집에 있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면접 당시 29세) 나도 외국인과 결혼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침 한국인과 결혼한 친구가 사람을 소개해 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출국대기여성 2번)”

“우리집은 자식도 많고(총 6명) 아들 3명이 아직도 학교를 다니느라 학비도 많이 들고, 게다가 최근에는 술을 만들어서 파는 일도 잘 안되어서 빚을 많이 졌어요. 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집에 그냥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집안을 돕고 싶다고 임버릇처럼 말을 하곤 했지요. 그러더니 한국인과 결혼한 친구를 통해서 중개업체를 소개받고 직접 등록을 했어요. 여러 명을 만나본 후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결정했지요(부모 응답자 5번)”

한 응답자는 국제결혼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자녀를 위해서’를 꼽았다. 외국이 교육 기회와 복지, 삶의 질 측면에서 베트남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경적인 맥락에는 자신의 조건적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의 베트남 남성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내재되어 있었다.

“내 조건적 상황이 열악해서(집이 가난한 것 등) 베트남 남성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인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적어도 외국인과 결혼

하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이 나올 테니까, 자식에게는 최소한 나보다 나은 기회와 환경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조건은 지금 바꿀 수 없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면 낫지 않을까...(출국대기여성 4번)”

3) 상황적 요인 및 기타

국제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지배적인 경향성을 보인 것은 ‘상황적 요인’ 혹은 ‘남편을 사랑해서’였다. 이 중 ‘상황적 요인’이라는 응답은 출국대기여성 2명과 부모 1명이 제시하였다. ‘상황적 요인’에는 이혼,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베트남에서는 적합한 남성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고려가 포함된다. 조사대상 중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인 예는 소수 있지만 베트남 여성이 재혼인 경우는 없었다. 반면 대만인과 결혼한 여성 중 2명은 이혼 후 재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출국대기여성 6번, 부모응답자 6번). 이혼을 한 여성들은 베트남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혹은 적합한 남성과 재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응답하였다.

‘남편을 사랑해서’ 혹은 ‘운명/인연인 듯’이라는 응답은 출국대기여성 3명과 부모 5명이 제시하였다. 이는 가장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유이지만 동시에 가장 포괄적이면서 해석이 어렵기도 하다. 응답자들이 결혼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당위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남편을 사랑해서’ 혹은 ‘운명/인연인 듯’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으나 국제결혼을 특별히 희망하거나 의도한 적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들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얼마나 성격적으로 잘 맞는지, 서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좋아하고 공유하는 면이 있는지라고 주장하였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국제결혼을 위한 적도 없었고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어요. 사실상 남편이 베트남에서 살겠다고

하면 베트남에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소개받고 연락하다 보니 맘에 들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더 좋았어요. 만일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소개해 준 친구에게 싫다고 말했겠죠(출국대기여성 7번)”

“딸은 인기가 많은 편이라 쫓아다니던 동네 남자들이 많았어요. 다 싫다고 하더니 한국인과 결혼한 사촌이 소개한 사람은 몇 번 연락하고 만나보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연인 것 같아요. 가족 누구도 외국인과의 결혼을 권해본 적 없고, 딸도 베트남 남자랑 결혼해서 가족과 가까이 살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부모 응답자 9번)”

2. 의사결정주체 및 과정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 결혼과 동시에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 국제결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베트남 여성들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외국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가? 현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들은 상당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국대기여성 및 부모 응답자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응답자 전원이 전적으로 당사자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가족들의 반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응답은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해야 하며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의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결정과정에는 이미 혼인이주를 성공적으로 경험한 친구나 친척들의 영향, 국제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결정은 전적으로 내가 했어요.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친척이 남편을 소개했어요. 엄마는(부모님은 2년 전에 이혼하여 조사 당시 엄마와 같이 살고 있음) 전혀 관

여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사는 것은 제 일이니 아무도 도와주거나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결혼 결정 사실을 알렸을 때 아무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지를 물었고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죠. 엄마는 저랑 헤어져서 사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구요(출국대기여성 1번)”

“요즘은 결혼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10%도 안되는 것 같아요. 나도 전적으로 내가 결정했고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좋다고 내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지지해 주었어요(출국대기여성 6번)”

직접 남편을 소개하지는 않았더라도 가족 중에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 있거나 남편의 나라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혹은 국제결혼이 보편적으로 만연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족 중에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 없거나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들이 결혼 결정을 지지하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 아무도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내 결정이고 내 선택이니까... 그렇지만 부모님과 친척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요.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멀리 떨어져서 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괜찮겠냐며 잘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권유했지요. 우리 동네에는 국제결혼이 아직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라서 더 걱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출국대기여성 9번)”

“사실 나는 딸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었어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외국에서 산

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걱정스러웠지요. 혹시나 잘못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주 못 볼 거라는 생각에 슬프기도 하고...그래도 딸이 결정한 것이니까 그대로 따라주었어요. 결국 자기가 살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야 하니까...다행히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부모 응답자 13번)”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결혼을 지위상승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국제결혼 결정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한 출국대기 여성의 어머니는 면접을 하는 동안 동석을 하면서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흐뭇하다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결혼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과 과정을 전혀 모른 채 딸로부터 일방적으로 결혼 결정을 통보받은 부모들도 다수 있었다.

“결혼 결정을 처음으로 엄마에게 알렸을 때 엄마는 전적으로 내 의사를 존중해 주었어요. 단지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살고 여동생도 다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면 엄마 혼자 살아야 해서 좀 슬퍼했죠. 저랑 멀리 떨어져서 산다는 것도 슬퍼했고요. 그래도 어차피 베트남 남자와 결혼해도 멀리 살면 잘 못 보게 될테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 결정에 대해서 아빠도 전적으로 지지했고요. 오히려 내가 한국인과 결혼한 것을 다들 자랑스러워하네요(출국대기여성 3번)”

“딸이 결혼 결정 사실을 알려왔을 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하려고 일련의 과정을 거친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놀랍고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딸의 결정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나에게 반대할 권리는 없지요. 다 자란 성인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야죠. 딸에게 네 선택이니 결과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면 안된다,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만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사위감을 만나보니 다행히 좋은 사람 같아 보였

어요(부모 응답자 1번)”

“결혼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요. 사실 나는 딸이 대만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랐어요. 동네에 대만 사람과 결혼한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소식 듣기도 쉬울 것 같고, 한국보다 대만이 베트남에서 가깝다고 하니 다녀가기도 좋을 것 같아서...이런 얘기는 딸에게 해 본 적 없어요. 딸이 한국 사람을 선호하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부모 응답자 3번)”

“딸의 결혼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동네에 한국인과 결혼한 집들이 많은데 다들 행복하게 잘 산다고 들었어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인들은 믿을만하고 친절한 것 같았고요. 딸이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랑받고 산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죠(부모 응답자 9번)”

면접 결과에 따르면 결혼 결정의 원인과 경로는 다를지라도 의사결정주체는 전적으로 당사자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혼인이주를 하는 여성들은 다양한 원인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주체자로 여겨진다. 물론 이는 정보와 네트워크 소유 및 정보 격차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결혼을 결정하는 젊은 당사자들은 중개업체나 이미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의 소유도와 접근 가능성이 더 많은 반면 부모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령 결혼 당사자가 이미 부모와 떨어져서 호치민시에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와 접근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외국인과 결혼한 친구 혹은 친척들을 통한 소개와 접근에 젊은 여성들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국제결혼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선별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어서 자녀의 결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도 하였다.

“사실 딸이 결혼 얘기를 하였을 때 나는 반대할 입장이 못 되었죠. 어차피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줄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게다가 사실상 일단 딸이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부담을 덜어주고 안도감을 주었고, 국제결혼을 하라고 권하거나 바랬던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외국인과 결혼해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구요(부모 응답자 9번)”

이 연구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혼인이주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자들의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부모님께 의견을 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만일 부모님이 반대하였다면 결정을 바꾸었을 것이냐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다시 신중히 고려해 보겠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응답과 부모님의 반대와 관계없이 결정대로 추진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이 베트남 가족문화와 부모자녀관계 전반에 걸쳐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이라는 특수한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이 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하여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자녀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면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혼인이주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혼인이주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와 결과로써 나타나는 적응과 갈등은 충분히 진행되어 왔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 왜 어떤 결정과정을 거쳐서 혼인이주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

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결혼경로와 결혼생활 적응 및 경험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혼인이주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노력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혼인이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논의역시 미미하며 현지조사를 통하여 가족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을 대기하는 여성들과 혼인이주를 한 딸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 2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혼인이주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개인적인 열망, 타인을 위하여, 상황적인 요인 및 운명/인연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자가 기존에 설정한 가설에 따라 구분한 것도 아니다. 혼인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파악됨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물론 혼인이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구분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도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베트남 여성들과 가족들이 혼인이주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은 혼인이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여성들이 가족과 개인의 전략적 차원에서 결혼이주를 선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경제적인 원인이 혼인이주의 중요한 원인임은 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제적인 원인이 혼인이주의 주된 원인으로 포착되는 경우라도 혜택의 주체가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라 여성들의 노력이 어떻게 다른지 세세한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이 연구는 국제결혼을 한 딸을 둔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본 혼인이주의 원인도 파악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예: 하이퐁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제결혼이 보편적으로 만연하게 나타나고 주변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접한 지역(예: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결혼 자체에 대한 반감이나 거부감은 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국제결혼을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부류의 대상으로 여기는 지역도 있었다.

혼인이주 결정과정의 역동성이나 부모의 개입은 그다지 파악되지 않았다. 결혼이란 사건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높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개인의 인생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누구도 결정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혼인이주를 결정하는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주체자인 측면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이 허용하는 베트남의 문화적인 일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지조사의 특성상 현지연구자들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가령 여러 번에 걸친 번역 과정에서 응답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 대상 지역과 응답 대상자를 선정 및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선별적인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제한점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베트남 현지 조사를 통하여 가족들과 출국대기여성들을 대상으로 혼인이주의 원인 및 경로, 결정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혼인이주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도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혼인이주 의사결정 주체 및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하여 탐색적인 기술을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으로써, 추후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베

트남 가족에서 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다 분석적으로 연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의 글

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유익한 도움 말씀을 주신 한양대학교 김두섭 교수님, 동국대학교 김정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현지 조사를 가능하도록 도와준 Dang Nguyen Anh, Nguyen Thanh Liem, Tran Thi Kim Xuyen, Trinh Duy Luan 과 인터뷰와 통번역 및 녹취를 도와준 현지 조사원들, 그리고 면접에 응해준 응답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현지 조사에 대한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은 Le Bach Duong과 Danièle Bélanger 교수, 그리고 이 논문을 읽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참고문헌

-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여름), 10-37.
- 김현재(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1), 219-253.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미래인력연구원.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엘리스 클레어(2005) 지구촌 문화충격 탈출기: 베트남. 서울: 휘슬러.
- 유인선(1997) 전근대 베트남의 중국가족계 수용과 변용: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5, 25-50.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 김성국 · 정근식 · 유명기(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321-349.
- 이선주 · 김영혜 · 최정숙(2005) 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이주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조국가적 연결망. 서울대학교 인류학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보도자료. www.nso.go.kr
- 하 밍 타잉(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석사학위 논문.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건수 · 설동훈(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 및 관리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서울: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홍기혜(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 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Bélanger D(2007) The house and the classroom: Vietnamese immigrant spouses in South Korea and Taiwan. Population and Society 3(1), 39-59.
- GSO(2007)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07. 06. 19) www.gso.gov.vn
- Hirschman C, Vu Manh Loi(1996) Family and household structure in Vietnam: Some glimpses from a recent survey. Pacific Affairs 69(2), 229-249.
- Knodel J, Friedman J, Truong Si Anh, Bui The Cuong(2000) Intergenerational exchanges in Vietnam: family size, sex composition, and the location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54, 89- 104.
- Limanonda B(2008) Motivation and process of marriage migration: A case study of Thailand. Cross-Border Marriage: Process and Dynamics. Seou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ersity. 211-250.
- Luong HV(1989) Vietnamese kinship: Structural principles and the socialist transformation in northern Vietna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8(4), 741-756.
- Nakamatsu T(2003) International marriage through introduction agencies: Social and legal realities of 'Asian' wives of Japanese Men.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181-201.
- Ogena NB., Minda CV, Golda MR. Roma(2008) Filipina marriage migration streams to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Cross-Border Marriage: Process and Dynamics. Seou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ersity. 165-186.
- Piper N(2003) Wife or worker? Worker or wife? Marriage and cross-border migration in contempora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9, 457-469.
- Thi Hong Xoan Nguyen(2005) Marriage migration between Vietnam and Taiwan: A View from Vietnam. presented at CEPED-CICRED-INED Conference on female deficit in Asia: Trends and Perspectives. Asian Meta Center for Popul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alysis, Singapore, December 5-7, 2005.
- Tsay Ching-Lung(2004) Marriage migration of women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 to Taiwan. (Un)tying the Knot: Ideal and reality in Asian marriage. Singapore: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73-191.